한국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에서의 차원과 평가

Dimensions and Assessment of Korean Parenting Style

경희대학교 아동가족·주거학과
교 수 조 복 희
전북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강 사 이 진 숙
인하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강 사 이 홍 숙
경희대학교 아동 가족·주거학과
강 사 권 희 경

Dept. of Housing, Child and Family Studies, Kyunghee Univ.
Prof. : Cho, Bokhee
Dept. of Home Management Junbuk National Univ.
Instructor : Lee, Jinsook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Inha Univ.
Instructor : Lee, Hongsook
Dept. of Housing, Child and Family Studies, Kyunghee Univ.
Instructor : Kwon, Heekynng

목 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연구방법 및 절차
Ⅳ. 연구결과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develop the parenting style scale which is reflecting cultural background of Korean parent's parenting for their children. The instrument was designed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s and on the Baumrind's parenting style. A total of three hundred and sixty two mothers whose children from first and second grade in elementary school completed the questionnaires. The questionnaires consisted with the items addressing different types of parenting style which include love and care, encouragement of independence, enjoyment in parenting, communication, control, control of aggressiveness, strategies of control , request of maturity.

Factor of analysis was applied to examine validity of Korean parenting style scale. Based on the factor

analysis, 33 items selected for final questionnaire and two factors discovered. The first factor which named 'warmth' included 20 items such as love and care toward their children, communication, enjoyment in parenting, encouragement toward independency. The second factor which named 'control' included 13 items such as control of children's behavior and discipline of children. Warmth factor accounted for 46% of variance and control factor accounted for 18% of variance.

Internal consistency was also checked. Although warmth and control factor represented a moderate internal consistency, control factor showed lower correlations than warmth factor. The reliability estimates (Cronbach alpha) were .87 and .71 for warmth and control factor respectively.

Korean parenting style scale can be used to address the appropriateness of Baumrind's theoretical assumptions in parenting style as well as to examine parenting style for Korean population. However, this instrument was developed with Korean mothers only. Further analysis need to be addressed with fathers.

I. 서 론

역사적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은 광범위한 관심의 주제가 되어왔으며, 많은 연구자들이 부모의 태도 및 행동의 다양성과 안정적인 패턴을 밝히려는 시도를 거듭해왔다. 상이한 양육방식(parenting style)[1]에 대한 오랜 관심은 주로 예측적인 것으로, 연구자들은 아동 발달을 예측할 수 있는 부모 행동을 규명하고자 하였는데(Maccoby and Martin, 1983), 부모가 사용하는 통제방법이나 통제전략이 아동의 모든 특성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Baumrind, 1967, 1971).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Baumrind(1971, 1991)의 유형화는 현재 양육 방식에 관한 모델 중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Baumrind(1967, 1973, 1977)는 부모들의 양육방식이 권위주의적(authoritarian), 허용적(permissive), 권위있는(authoritative) 양육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밝혔다.[2] 통제, 의사소통의 명료성, 성숙 요구, 온정이라는 네 차원에 관련된 태도 및 행동이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양육방식이 도출되는 것이다

과거 25년동안 Baumrind의 개념에 기초를 두고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해 연구한 결과들은 미국의 지배문화에서 아동이 성공적으로 사회화될 수 있게 하는 일정한 양상을 밝혔다. 정서적 지지, 적절한 자율성 부여, 분명하고 쌍방적인 의사소통을 특성으로 하는 '권위있는 양육'(authoritative parenting)은 아동과 청소년이 사회적 욕구·책임과 개인적인 욕구·책임간의 균형을 취할 수 있는 '도구적 유능성'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Baumrind(1989, 1991)에 의하면, 도구적 유능성의 지표들은 책임있는 독립심, 성인 및 또래와의 협동, 심리 사회적인 성숙, 학업적 성공을 이루는 것이라 했다.

권위있는 양육에 대한 연구와 그것의 긍정적 효과는 반세기동안 양육방식 연구의 기초가 되어 왔으나, 백인과 중산층 이외의 집단을 연구했을 때는 가족이 처한 사회환경에 따라 각 양육방식과 아동의 발달적 결과간의 관계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예컨대, Baumrind(1971)의 연구에서 유럽계 미국 아동의 경우 '권위주의적' 양육(authoritarian parenting)은 두려움과 수줍음, 순종과 관련되어 있었으나, 아프리카계 미국 소녀들의 경우에는 '주장성'과 관련이 있었다. 또한 '권위있는' 양육(authoritative parenting)은 유럽계 미국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업성취와 관련이 높은 반면, 아시아계와 아프리카계 미국 청소년의 학업성취에는 가장 효과가 적었다(Darling & Steinberg, 1993).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첫째, 권위있는 유형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1) 부모의 양육방식은 특정 양육실제의 효과를 매개하고 사회화에 대한 아동의 개방성을 변화시킴으로써, 부모의 사회화 노력의 '효과'를 변화시키는 '부모의 특성'이라고 개념화된다.

2) 우리나라에서의 번역이 다양하나 본 연구자는 「authoritative」를 긍정적 의미인 「권위있는」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있어서 민족간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Okagaki & Frensch, 1998) 둘째, 각기 다른 양육유형의 적절성이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는지 결론지을 수 있는 실증적인 기반이 없다고 볼 수 있다.

Chao(1994)는 중국의 부모역할은 종종 "통제적" 혹은 "권위주의적"으로 기술되어왔지만 이러한 양육유형이 유럽계 미국 청소년과는 달리 학업수행을 잘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Baumrind가 제시한 "권위있는" 양육과 "권위주의적인" 양육의 개념이 다소 자민족중심적이며, 중국이나 그밖의 아시아국가들(한국, 일본 등)의 자녀양육의 중요한 특성을 포착하지 못한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중국 청소년이 미국 청소년보다 "권위주의적", "통제적"인 점수가 높은 것은 상이한 문화체계로 인한 것으로서 이러한 개념들은 중국인에게는 상이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다. 즉 아시아계 학생들을 잘 설명할 수 없는 선행연구들(예:Dornbusch et al., 1987)을 예로 들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권위주의적", "제한적" 양육개념이 아시아인에게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주장한다. 예컨대, 아시아인에게 있어서 부모에 대한 순종과 엄격성의 일부 측면들은 부모의 관심, 애정, 참여와 동등하게 간주될 수 있으며, 부모의 통제 역시 자녀에 대한 "지배"와 항상 관련되기 보다는 가족의 조화와 원할한 가정운영을 위한 즉, 가족에 근거한(천희영, 1998) 구조화된 통제유형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권위주의적"의 대안으로 "training" 개념을 사용하여 아시아계 부모역할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논의들은 Baumrind가 제시한 양육유형이 부모의 양육행동을 이해하고 자녀발달을 예측하는데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이제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서구의 양육행동 척도를 번안하거나 연구자 나름대로 제작한 측정도구들이 사용되어 왔다.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왔지만, 다수의 연구들(박성연 · 이숙, 1990: 박영애, 1995: 천희영, 1992)이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양육행동의 하위차원 각각에 대해 분석하는 경향이었으며, Baumrind의 개념적 틀에 근거를 둔 척도개발은 미진하였다.

양육행동의 유형을 도출해내는 접근방법은 이론적 기반 위에서 현실 속의 양육행동들을 준 유형화해 보는 것으로서, 측정가능한 주요 양육요인을 이용해서 양육행동을 가능한 한 실제에 가까운 모습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이 인정된다(박영애, 1995).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양육방식에 관한 모델 중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Baumrind의 개념에 근거를 두고 우리의 문화적 실정에 맞는 양육행동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한편 Baumrind가 제시한 유형론은 양육행동 연구에 많은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시한 주요 유형을 도출하기 위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방법론적 전략들은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즉, 그는 양육유형을 평가하기 위해 부모의 평정척도, Q-sort, 관찰법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방법은 연구대상이 적을 수밖에 없고, 자료수집에 비용 및 시간이 많이 든다. 따라서 Baumrind가 제시한 유형을 평가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가 사용한 공통적인 전략은 부모의 양육유형에 대한 청소년의 보고를 얻는 것이었다(Robinson et al., 1995). 그러나 청소년기 이전의 아동들은 부모의 양육실제를 정확히 평가하지 못하므로, 어린 아동에게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Baumrind의 개념적 유형화에 근거하여 취학 전후 자녀를 둔 부모에게 적용할 수 있는 양육행동 척도의 개발이 요청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Baumrind가 제시한 양육방식 개념을 살펴보고 이러한 논의에 근거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부모의 양육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 양육행동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지금까지 부모의 양육방식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수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개념화 및 측정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부모의 양육행동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인데 기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지난수 십년 동안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정의 및 양육행동을 구성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양육행동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어 왔는데, 하나는 양육행동의 다양한 차원을 구분해내려는 차원론적 접근과 다른 하나는 양육행동을 유형화하여 접근한 것이 그것이다(Steinberg et al., 1994). 양육행동의 상이한 차원들을 측정, 분석하여 양육행동의 주요 요인을 규명하고 그들이 독립적으로 또는 결합해서 아동발달 및 적응에 어떻게 연관되는지 보는 것이 차원론적 접근(dimensional tradition)이고, 자녀양육의 보편적인 방식 또는 유형, 양육행동의 조직과 분위기 등에 관심의 초점을 두고 그것의 전반적인 양육환경을 보여주는 창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유형론적 접근(typological tradition)이다(박영애, 1995).

1. 차원론적 접근

먼저, 아동 사회화에 대한 초기의 실증적 연구에서 양육유형을 기술하는데 사용되었던 차원(dimensions)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관점이 제시된 바 있다. Symonds(1939)는 이러한 차원에 수용/거부, 지배/복종을 포함했고, Baldwin(1955)은 정서적인 온정/적개심, 분리/관여를, Schaefer(1959)는 사랑/적개심, 자율성/통제를, Sears et al.(1957)은 온정과 허용성/엄격함을, Becker(1964)는 온정/적개심, 제한/허용성을 포함하였다(Dworetzky, 1984. 재인용).

Schaefer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심리학자들로 하여금 평정케하여 요인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애정-적대와 자율-통제라는 두 개의 직교차원으로 구성된 양육행동 개념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를 기초로 아동의 부모 양육행동 지각척도를 개발하여 정상아와 비행아를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 및 변별력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부모양육행동의 3차원적 모형을 제시한바 있다 26개의 하위개념들에 각 10문항씩 속한 이 척도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며, 요인분석 결과 추출된 세 차원은 수용 대 거부, 심리적 자율성 대 심리적 통제, 엄격한 통제 대 느슨한 통제이다.

Bronfenbrenner(1961)는 코넬 부모행동척도의 원형인 부모양육행동질문지를 15개 하위개념으로 구성하고있는데(각 변인별 3문항씩 총45문항), 요인분석 결과, 애정, 벌, 요구라는 세 개의 직교하는 요인들로 묶여졌다(Siegelman, 1965). 애정요인은 지원, 도움, 의논상대가 되어줌, 함께 있는 것을 즐김, 애정적인 행동, 칭찬, 아동에 대한 확신 등을 포함하며, 벌 요인은 아동의 감정이나 필요에 상관없이 벌을 자주 줌, 거부와 적대가 두드러짐 등을 포함한다. 요구요인은 통제, 보호, 요구, 침해, 잘못을 저지르면 화를 내고 냉정해짐 등을 포함한다.

부모의 양육행동차원(Parenting Dimensions Inventory; PDI) 이라는 다차원적 자기보고식 척도를 개발한 Slater와 Power(1987)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평가하였는데, 그들은 양육방식을 온정과 지지, 훈육과 통제, 구조의 세차원으로 구분한다. 이 척도는 부모의 온정/지지(온정, 아동에 대한 반응성, 비제한적인 태도), 훈육/통제(성숙요구, 통제의 양, 통제유형), 구조(일관성, 조직화)의 세가지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

Block(1981)은 22개의 문항집락들로 구성된 자녀양육행동척도를 개발하여 양육행동의 안정성 측정 등을 위한 연구에 사용한 바 있는데(Roberts, Block & Block, 1984), 91개의 Q-Sort형식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이 척도는 나름대로 철저하게 양육행동을 측정하고 있으나 Block자신이 이 척도의 요인구조 규명에는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은데다, 문항들이 양육행동만이 아니라 부모자신의 태도, 가치, 그리고 목표 등을 두루 포함하는 포괄적인 영역에 걸쳐있어 요인구조를 토대로 한 척도제작이나 다른 척도와 직접적인 비교자료로는 한계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도출된 양육척도의 기본 차원 또는 요인이 매우 유사하게 나

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양육유형의 기본적 구조에 대한 동의와 더불어, 아동발달과 부모 양육간의 관련성에 대한 의견의 일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Symonds가 사회적, 협동적이며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명랑하며 정직하다고 묘사한 모범적인 아동과, 후에 Baumrind가 '도구적인 유능성'으로 명명했던 아동은, 부모가 특정 방식으로 행동한 가정에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모는 온정적이고, 아동의 환경 내에서 자율성을 허용하는 분명하고 합리적인 지침을 설정하고, 지침을 설정하는 부모의 기대와 이유를 분명히 전달하였다.

2. 유형론적 접근

1) Baumrind의 유형론

Baumrind(1971, 1988, 1991)가 제시한 부모역할의 핵심요인은 개인의 통합성을 유지하면서 타인의 요구에 순응하는 아동으로 사회화시키는 것이었다. 그의 초기 연구는 영유아기 발달에 관한 부모의 권위유형의 다양성의 영향에 집중하여, 점차 부모의 통제 개념을 확장시키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통제가 엄격함, 체벌사용, 처벌의 일관성, 설명의 사용 등과 같이 다양하게 정의되었으나, Baumrind는 자녀를 사회화시키기 위한 부모의 의지는 개념상 부모의 **제한성과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부모의 **통제**를 행동적 순응을 요구함으로써 가정과 사회 속에 아동을 통합시키려는 부모의 시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Baumrind(1968)가 제시한 양육유형의 조작적 개념은 이전의 연구들과 구분되는데, 첫째, 그는 통제라는 하나의 광범위한 양육기능을 구체화하고 명료하게 했다. 둘째, 부모의 통제가 높은데서 낮은 데까지 일직선상으로 조직화되기보다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세 가지 통제유형 - 권위있는, 권위주의적, 허용적- 으로 구분하였다. 셋째, 양육유형을 정의하기 위해 형태론적 접근을 사용하여, 부모양육의 어떤 한 측면(예: 이데올로기, 성숙요구, 구체적 훈육기법의 사용)의 영향은 다른 모든 측면에 의존한다고 설명했다(Darling & Steinberg, 1993에서 재인용).

Baumrind(1967, 1973, 1977)는 부모들의 양육방식을 권위주의적, 허용적, 권위있는 양육방식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이 통제, 의사소통의 명료성, 성숙 요구, 온정에 관련된 태도 및 행동과 관련하여 구분될 수 있다고 보았다. 통제는 부모의 기대에 순응하도록 하는 방식 및 정도를 의미하며, 성숙 요구는 기대 설정 수준, 의사소통은 행동 방식에 관해 자녀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관련되는 개념이다. 온정은 애정을 표현하고 자녀를 신체적 정서적으로 편안하게 돌보기 위한 부모의 태도와 행동으로서, 부모가 아동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특히 부모의 통제는 사회화 기능으로 간주하여 아동으로 하여금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형성시키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수정하며 부모기준의 내재화를 촉진시키고자 의도된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므로 그가 정의한 부모의 통제는 제한성, 처벌적 태도나 강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네 가지 차원이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세가지 양육방식이 도출된다. 권위주의적인 부모는 통제와 성숙요구 수준이 높은 반면, 의사소통과 온정 수준이 낮은 부모이다. 즉 통제와 무조건적인 복종을 가치롭게 생각하고, 자녀에게 정해진 행동표준을 따르게 하고 그 표준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는 매섭게 벌을 주고 냉담하고 덜 온정적이다. 허용적인 부모는 통제와 성숙요구 수준이 낮고 의사소통이 적은 반면, 매우 온정적인 특성을 보이는 부모이다. 이러한 부모들은 자신을 자녀의 모델 또는 양육자로 보기보다는 자원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며, 자녀에게 벌을 거의 주지 않는다. 반면, '권위있는 부모'는 통제와 성숙 요구수준이 높고, 동시에 자녀와의 의사소통 및 온정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아동의 개별성을 존중하는 한편 사회적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요하다면 엄격하게 통제를 하지만 거기에 내재된 이유를 설명해주고 언어적 상호작용을 장려한다. 부모들은 자녀를 지도하는 능력에 자신감이 있고 자녀의 흥미, 인격, 독특성을 존중해준다. 사랑을

주고 일관성이 있으며 요구적이고 자녀의 독립적인 결정을 존중하는 반면 행동기준을 지키는데 있어서는 확고하고 필요한 벌은 기꺼이 준다.

Baumrind의 유형론적 접근에 대한 실증적 타당화는 양육유형 연구의 강조점을 변화시켜 요인분석적이고 차원론적인 전통에서 벗어나는 출발점이 되었으며, 부모역할 연구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는데 기여했다.

2) Maccoby와 Martin의 2차원 모델

한편 Maccoby와 Martin(1983)은 Baumrind의 유형론적 접근을 제한된 몇 개 차원에 따라 부모역할을 정의하는 초기의 시도에 통합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양육유형을 반응성과 요구라는 2개 차원의 함수로 양육유형을 분류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요구'와 '반응성'이라는 직교하는 두 차원에 따라 부모역할이 변화하면서 네 가지 유형이 도출된다. 첫째, 권위있는 부모(authoritative)는 반응적이며 요구적이다. 이들은 일관성있고 확고한 통제를 하지만 그 표준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한다. 이들은 애정적, 지지적이고 자율성을 격려한다. 둘째, 권위주의적인 부모(authoritarian)는 요구적이지만 반응적이지 않다. 이들은 자녀의 신념이나 행동이 자신들의 표준과 일치하지 않을 때 복종을 요구하며 처벌한다. 이들은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며, 자녀의 요구에 반응적이지 않다. 셋째, 허용적인 부모(permissive)들은 반응적이지만 요구적이지 않다. 이들은 따뜻하고 아동의 행동에 대해 상당한 자기-규제를 허용한다. 자녀에게 성숙한 행동을 거의 요구하지 않고 부모의 표준에 따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넷째, 거부적인 부모(neglecting)는 반응적이지도, 요구적이지도 않다. 이들은 자녀에게 애정을 표현하지 않으며, 행동을 감독하지도 않는다. 이들 네가지의 양육유형은 부모역할에 대한 태도 및 가치, 아동의 본성에 대한 신념을 포함하며, 또한 자녀의 사회화를 위해 사용하는 구체적인 양육실제를 포함한다. 부모의 양육유형은 그 기능상 시간에 따라 안정적이라고 여겨지고 있다(Smetana, 1994).

Maccoby와 Martin(1983) 외에 여러 연구자들이 다양한 양육유형을 제시한 바 있다. Dornbusch와 동료들(1987)은 본래의 세 유형과 아울러 권위주의적-허용적, 권위있는-권위주의적, 허용적-권위있는 이라는 세가지 혼합형 유형과 그 세가지가 모두 높은 경우, 그리고 그 셋중 어는 것도 높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한 양육유형의 효과를 보는 시도를 한 바 있다. Lamborn과 동료들(1991), Steinberg과 동료들(1994)은 양육차원으로 **'수용/참여'와 '엄격/감독'**을 사용하였으며, 이 두 차원 각각의 점수의 높고 낮음에 따라 양육행동을 권위있는, 권위주의적, 익애적, 방임형으로 구분하였다.

Boyes와 Allen(1993)은 Schaefer의 세가지 양육차원의 점수조합을 이용하여 Baumrind와 유사한 양육유형을 재구성하고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권위주의적**: 수용점수는 낮고 심리적통제와 엄격한 통제점수는 높음/ **허용적**: 수용점수가 높고 엄격한 통제와 심리적 통제 점수가 낮음/ **권위있는**: 수용점수와 엄격한 통제점수는 높고 심리적 통제점수는 낮음).

이러한 연구들은 차원론적 도구에서 출발하여 양육행동의 유형을 도출해내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이론적 기반 위에서 현실 속의 양육행동들을 준 유형화해 보는 것으로서, 측정가능한 주요 양육요인을 이용해서 양육행동을 가능한 한 실제에 가까운 모습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이 인정된다(박영애, 1995).

실제로 Robinson 등(1995)은 Block의 80개 문항에 53개의 새로운 문항을 첨가하여 133문항(5점 척도)을 구성한 뒤 요인분석결과를 통해 Baumrind의 3가지 주요 유형론과 일치하는 양육행동 질문지가 실증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본 연구는 Baumrind가 제시한 부모의 양육방식 모델에 근거하여 부모의 양육행동을 평가할 수 있는 실증적 수단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이론적 고찰 및 실증적 연구들에서 제시된 양육행동 관련 문항들을 추출한 뒤, 문항 양호도 및 요인분석 과정을 거쳐 부모의 양육방식을 도출 할 수 있는 양육행동 측정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특히 Baumrind가 제시한 양육행동의 기본특성을 반영하

면서, Maccoby와 Martin(1983)의 연구와 같이 하위 차원의 조합에 근거하여 특정 양육방식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소의 양육차원을 추출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및 절차

이 연구는 부모의 양육방식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시와 전주시 소재 초등학교 1, 2학년 남녀 아동 400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자녀에 대한 평소의 양육행동을 평가하도록 했다. 대상의 표집은 서울에서 6개 초등학교, 전주에서 1개 초등학교를 유의표집하였다. 자료수집은 1999년 2월에 약 2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교사들이 아동을 통해 어머니에게 질문지를 보내고 이를 다시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총 400부의 질문지를 배포한 결과 365부가 회수되었으며 부실 기재된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62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 어머니의 연령은 20대가 77명(21.9%), 30대가 201명(57.1%), 40대가 74명(21%)으로 전체의 반수이상이 30대였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124명(34.7%), 전문대졸 41명(11.5%), 대졸 178명(49.9%), 대학원졸이 14명(3.9%)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Baumrind의 이론에 근거하여 하위 차원을 구성하되, Block(1965)의 CRPR, Slater과 Power(1987)의 Parenting Dimension Inventory(PDI; 권연희, 1996 재인용), Robinson et al.(1995), 천희영(1992), 공인숙(1989), 박성연 · 이숙(1990) 등을 참조하여 Baumrind 가 제시한 이론적 근거와 가장 유사한 문항들을 선정하였다.

Baumrind의 개념적 모델에 근거하여 통제, 성숙요구, 의사소통, 온정 등 4개 하위차원의 내용이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문항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문항 선정 기준을 적용한 결과, 본 척도에 사용된 문항들은 애정과 관심, 독립성 격려, 양육의 즐거움, 의사소통, 통제, 공격성 억제, 통제전략, 성숙요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전체 4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자료분석

타당도 검증을 위해 주요인분석을 실시하고 회전은 직교회전 방법을 선택하였다. 문항 양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 및 표준편차, 문항-척도간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는 내적 합치도 지수인 Cronbach α계수를 산출했다. 수집된 자료의 처리는 SAS-program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양육방식 척도의 요인분석

어머니의 양육방식 척도의 구조를 파악하고 도구 구성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전체 44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요인분석 절차를 사용하여 직교회전방법으로 회전시키고, 요인의 수를 변화시키면서 문항구성의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먼저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각 요인의 고유값을 살펴본 결과, 제1요인의 고유값은 7.47, 2요인은 2.94, 3요인은 1.35 4요인은 1.12로 나타났다. 요인1과 요인 2는 각각 전체 분산의 46%, 18%를 설명하여 이 두 요인만으로 전체의 64%를 설명하였으며, 3요인과 4요인을 추가하였을 때 전체 분산의 8%, 7%를 추가 설명하였다. 요인의 수를 4로 정할 경우 2요인으로 할 경우보다 15%정도를 추가 설명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양육방식에 대한 이론적 구조에 근거하여 요인의 수를 2로 결정하였다.

각 하위척도별로 문항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요인부하량이 낮은 문항을 제외한 후, 총 33문항에 대한 주요인분석(직교회전)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요인 1은 20문항으로 자녀에 대한 애정과 관심, 자녀와의 의사소통, 양육

〈표 1〉 양육방식 요인분석결과

문	항	요인 1	요인 2	h2
X19	아이와 친밀한 시간을 가짐	.70	.08	.50
X28	아이의 의견 존중 및 표현	.70	.06	.49
X31	아이에게 이야기해주고 놀아줌	.61	-.05	.37
X12	가족규칙을 아이와 함께 결정	.57	.11	.34
X08	아이가 물으면 잘 설명함	.57	.15	.35
X05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움	.56	-.01	.32
X43	규칙을 지켜야할 이유를 설명	.55	.38	.45
X36	사물을 탐구하도록 격려	.55	.17	.33
X30	아이에게 느긋하고 편안하게 대함	.54	-.21	.30
X18	잘못한 행동에 대해 아이와 이야기함	.53	.35	.40
X03	아이에게 애정표현을 함	.52	-.01	.27
X45	아이에게 실수했을때 사과함	.51	.21	.30
X20	아이가 친구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있음	.50	.23	.31
X21	아이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설명함	.50	.30	.35
X16	아이에게 만족함	.48	.01	.23
X17	아이가 짜증내면 물어봄	.45	.26	.27
NX29	아이 키우는게 부담스러움	.38	-.04	.14
NX14	바쁠 때는 말상대를 해주지 않을 때가 있음	.36	-.13	.15
NX48	아이들이 싸우면 이유를 묻기보다 벌을 줌	.35	-.06	.12
X13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나 TV를 알고있음	.34	.17	.15
X50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동을 단호히 제지함	.07	.48	.24
X15	아이가 잘못했을 때 엄하게 꾸짖음	.19	.47	.26
X38	아이가 짜증내는 것을 받아주지 않음	-.29	.46	.30
X49	아이에게 엄하게 함	-.15	.46	.23
X40	다른 아이와 싸움을 하지 않도록 지도	.18	.45	.23
X47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하지 못하게 함	.15	.42	.20
X37	버릇을 들이기 위해 벌을 줌	-.07	.42	.18
X46	가정의 규칙이 정해지면 지키게 함	.34	.40	.28
X09	아이에게 항상 무엇인가 하라고 말함	-.03	.38	.14
X39	부모가 정한 규칙에 따르게 함	.03	.38	.14
X07	숙제 등 할 일을 확임함	.31	.36	.23
NX04	아이의 응석을 받아줌	-.30	.35	.21
X02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음	.20	.32	.14
	아이겐값	7.47	2.94	
	설명변량	.46	.18	
	누가변량	.46	.64	

의 즐거움, 독립성 격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온정'으로 명명하였다. 요인2는 13문항으로 자녀에게 행동표준을 설정하고 잘못된 행동을 통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통제'로 명명하였다. '온정' 요인은 전체 변량의 46%를 설명하고 있으며 '통제' 요인은 전체 변량의 18%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최종 선택된 양육행동 척도의 문항은 총 33개이며, 이는 전체 변량의 64%를 설명하였다.

2. 문항양호도

양육방식 척도에 사용된 문항들의 양호도를 살펴보기 위해 평균 및 표준편차, 문항-척도간 상관을 살펴보았다〈표 2〉. 온정 하위척도는 20문항으로 구

<표 2> '온정' 및 '통제' 하위척도 문항 양호도

(n=345)

온정 (20문항)			
문 항	평 균	표준편차	문항-척도간 상관계수
x28	4.01	.75	.66
x19	3.91	.78	.64
x31	3.31	.85	.55
x05	3.93	.77	.52
x30	3.31	.85	.46
x12	3.62	.89	.55
x08	4.04	.74	.55
x03	4.24	.82	.45
x43	4.17	.71	.56
x36	3.84	.77	.52
x16	3.75	.74	.45
x45	4.25	.66	.50
x20	3.96	.75	.50
x18	4.28	.62	.52
x21	3.97	.71	.50
nx14	3.00	.91	.32
nx29	3.97	.98	.35
nx48	3.84	.95	.30
x17	4.39	.67	.44
x13	4.33	.64	.32
통제 (13문항)			
문 항	평 균	표준편차	문항-척도간 상관계수
x38	3.27	.88	.35
x49	3.49	.95	.40
x37	3.60	.93	.35
x09	3.68	.81	.26
x15	4.33	.74	.37
x50	4.60	.74	.40
x40	4.35	.66	.36
x47	4.46	.62	.35
x39	3.52	.83	.33
x46	3.94	.65	.33
nx04	3.16	.87	.26
x07	4.27	.73	.30
x02	4.77	.47	.29

성되어 있고 평균 3.31~4.39의 비교적 높은 점수분포를 나타내었다. 문항-척도간 상관은 .30~.66으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13문항으로 구성된 통제 하위척도는 평균 3.16~4.60의 점수분포를 나타내었다. 문항-척도간 상관은 .26~.40으로 나타나 온정 하위척도에 비해서는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3. 신뢰도와 타당도

어머니의 양육행동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합치도 계수인 Cronbach α계수를 산출한 결과, 1요인(온정)은 α=.87, 2요인(통제)는 α=.71로, 척도의 신뢰도는 만족할만한 수준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의 준거타당도 검증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1999년 3-4월에 걸쳐 전주시 소재 유아교육기관을 통해 각 가정에 질문지를 보낸 후 회수하였고, 일부는 개별접촉을 통해 직접 자료를 수집하였다. 회수된 200부의 질문지 중 188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양육방식 척도와 어머니의 양육참여척도간에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유의한 상관(r=.42, r=.59, p<.0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각 하위요인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통제의 경우 상관계수가 .29~.43(p<.001)이고, 온정의 경우는 .47~.56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척도의 타당성을 지지해 주고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Baumrind가 제시한 모델에 근거하여

<표 3> 온정 및 통제와 양육참여행동간의 상관계수

	발달적 지지	돌보기 및 지도	함께 하는 활동	양육참여 전체
통제	0.36***	0.43***	0.29***	.42***
온정	0.56***	0.51***	0.47***	.59***

***p<.001

부모의 양육방식을 평가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Baumrind가 제시한 양육행동의 기본특성을 반영하면서, Maccoby와 Martin(1983)의 연구와 같이 하위차원의 조합에 근거하여 특정 양육방식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소의 양육차원을 추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실증적 연구들에서 제시된 양육행동 관련 문항들을 참조하여 Baumrind가 제시한 부모의 이론적 모델에 근거하여 문항을 선정한 뒤, 문항 양호도 및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주요인분석(직교회전)에 의해 전체 44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최종 선택된 양육행동 척도의 문항은 총 33개 문항이었다. 제 1요인은 자녀에 대한 애정과 관심, 자녀와의 의사소통, 양육의 즐거움, 독립성 격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온정'으로 명명하였으며, 이론적으로 별도로 구성된 온정과 의사소통 요인이 동일 차원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온정 요인은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고, 기꺼이 자녀양육을 수행하면서, 자녀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자녀와의 의사소통 수준이 높은 양육행동을 의미한다.

제 2요인은 자녀에게 행동표준을 설정하고 잘못된 행동을 통제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통제'로 명명하였으며, Baumrind가 제시한 성숙요구 및 통제 요인이 개념적으로 동일한 차원에 묶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통제란 부모의 규칙과 기대에 자녀가 따르도록 지도·훈육하고, 성숙한 행동을 요구하며, 부적절한 행동을 규제하는 양육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온정과 통제라는 두 요인은 전체 양육행동 변량의 64%(온정 46%, 통제 18%)를 설명하여 상당히 높은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Baumrind의 이론적 모델에 적합하게 부모의 양육방식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에 근거하여 어린 아동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실제 본 척도가 어머니만을 응답대상으로 한 만큼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참고문헌

1) 공인숙(1989). 부모의 온정 및 통제와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권연희(1996).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김경희(1992). 아동이 지각한 부모권위와 부모양육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0(1), 339-348.
4) 김지신(1996). 어머니의 전통-근대 가치관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5) 노명희·이숙(1991).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성취동기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9(4), 181-195.
6) 박성연·이숙(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41-156.
7)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8) 이숙(1991).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타당화를 위한 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1), 189-201.
9) 임양미(1994). 어머니 양육방식의 관련요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천희영(1992). 한국 아동의 기질 유형화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1) 천희영(1998). 권위적 부모역할 수행은 아동의 사회적 적응을 위한 최선의 양육방법인가?: 서구와 아시아 문화 및 사회적 행동에 따른 제고. 대한가정학회지. 36(8), 21-38.
12) 한종혜(1980). 부모의 인성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인성과의 관련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3) Baumrind, D. (1971). Parenting patterns of patern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Monogrph*, 4, 1-103.

14) Baumrind, D. (1991). Parenting Style and Adolescent Development. *In Encyclopedia of Adolescence*. by R. Lerner, A. Petersen, J. Brooks-Gunn(eds.), 746-762. N. Y.: Garland Publishing Company.

15) Bigner J. J. (1989). *Parent-Child Relations (3ed.)*. N.Y.: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6) Block, D. J. (1981). *The child-rearing practices report*. Unpublished manuscript, Univ. of California, Berkeley.

17) Chao, R.K. (1994). Beyond parental control and authoritarian parenting style: understanding chinese parenting through the cultural notion of training. *Child Development*, 65, 1111-1119.

18) Darling, N. & Steinberg, L. (1993). Parenting styles as context: An integrative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Vol. 113, No. 3, 487- 496.

19) Dworetzky, J. P. (1984). Introduction to child Development. (2nd). West Publishing Company.

20) Kochanska, G., Kuczynski, L., & Radke-Yarrow, M. (1989). Correspondence between mother's self reported and observed child-rearing practices. *Child Development*, 60, 56-63.

21) Kochanska, G. (1991). Mothernal beliefs as long-term predictctors of mother-child interaction and report. *Child Development*, 61, 1934-1943.

22) Maccoby, E. E., & Martin, J. A.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 child interaction. In E. M. Hetheringto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pp.1-102). N.Y.: Wiley

23) Okagaki, L., & Frensch, P. (1998) *Parenting and children's school achievement: A muliethnic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5(1), 123-144.

24) Roberts, Block, J.H., & Block, J. (1984). Continuity and change in parents' child-rearing practices. *Child Development*, 55, 586-597.

25) Robinson, C. C, Mandleco, B., Olson, S. F., Hart, C. H. (1995). Authoritative, authoritarian, permissive parenting practices: development of a new measure. *Psychological Reports*, 77, 819-830.

26) Slater, M. A. & Power, T. G. (1987).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parenting in single-parent families. In J. Vincent (ed.), *Advances in family, intervention, assessment, and theory*, Vol. 4, 197-228. Greenwich, CT: JAI.

27) Smetana, J. G. (1994). Parenting styles and beliefs about parental authority. In J. G. Smetana(ed.), *Beliefs about parenting: Origins and developmental implications*. New Directions for Development, No. 66. Winter, San Franscisco: Jossey-Bass Publishers.